

# 산돌

| 퍼낸이, 퍼낸곳  
한국기독교장로회 예가교회

|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22-41  
☎ 756-7707  
Fax 756-7607

| 인터넷  
<http://yega.org>

| 담임교역자  
조익표

| 부교역자  
장영진, 조영희

## 예가교회

**예가교회는,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거듭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충만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족으로 성장한다.**

금주의 말씀	2
크리스마스 잔치	5
매일기도	6
성경 자세히 읽기	8
가족소식	12
발에 감추인 보화	14
예가소식	16

##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한 해”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 점심 시간에 도시락을 드시고 있는 담임 선생님을 보며 내일 점심은 내가 준비해서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도시락을 싸오겠다고 말씀 드렸더니 선생님은 그러라고 하셨다. 선생님이 드실 점심을 준비하고 싶지만 음식하는 것을 배운 적도 없는 나는 오후 늦게 어머니에게 선생님 점심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다. 집이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장을 보려면 3시간은 필요했는데 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다 말고 장에 다녀오셨고 다음 날 김밥을 싸주셨다. 점심 시간에 선생님은 내가 준비한 김밥을 맛있게 드셨다. 누구를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실행이 되었고 덕분에 내가 누군가를 처음으로 대접한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때 일 이후로는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어서 그렇게 스스로 나선 적이 별로 없었다. 내가 누군가를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은 일로써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접하는 것도 내가 직접 해서 대접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교회에 오고 얼마되지 않아서 교우들에게 먹을 것으로 내가 직접 만들어서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에 내가 좋아하던 것이 해물 종류여서 해물탕으로 메뉴를 정하고 교우들을 거의 20명이나 초대했다. 떡볶이 외에는 음식을 해 본 적이 거의 없는 나는 일단 집에서 해물탕을 끓여봤다. 맛이 꽤 찰랐다.

그리고는 드디어 교우들에게 해물탕을

대접하기로 한 날이 되었다. 2-3시간 정도 준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수산시장에서 장 보는 것만 2시간 가까이 들었다. 음식량을 가늠하지 못했던 나는 조개 한 종류를 사더라도 초대한 분들이 모두 2-3개씩은 드실 수 있도록 샀다. 그러다 보니 해물탕 재료만 20kg짜리 쌀포대를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였다. 교회주방에서 재료를 겨우 다듬어 제일 큰 들통에 차곡차곡 넣으니 거의 꽉 찼다. 그리고는 거의 마쳤다는 느낌으로 해물탕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국물맛을 보니 내가



기대했던 맛이 아니었다. 초대한 교우들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고 당황한 상태에서 이런 저런 양념을 더 넣기 시작했는데 생강을 마늘인 줄 알고 잘못 넣었다. 급기야는 불조절을 잘못해서 밑부분은 타기까지 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교우가 내가 했던 그 해물탕이 정말 맛있었다고 했다. 내가 교우들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이 해물탕을 먹으며 느껴져서라는 것이었다.

몸을 움직여서 사랑하면 될 것을 시간이 없다, 못한다 등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다. 사랑하는 일이라면 일단은 몸을 움직이고 볼 일이다. 게다가 우리 교우들은 사랑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나서서 돕고 또 생강이 듬뿍 들어간 해물탕도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을 느끼며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니 그저 열심히 사랑하며 살면 될 것이다. 올 한 해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복을 정말 많이 누리는 한 해로 살기를 기대한다.



■ 성탄절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 절기입니다.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가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이고, 둘째가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단지 과거



사무엘기상 1 : 19 - 28  
히브리서 2 : 9 - 18  
누가복음서 2 : 41 - 52

에 있었던,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가 사는데 별 도움이 안 되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예수님이 겪었던 경험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재현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참 사람, 참 하나님이라는 멋진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완

벽한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일반적인 견해로는 상당히 모순된 말이라서, 칼게돈의 결정, 신인 양성교리는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어 심지어는 이 교리는 사람들이 아예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나 예수님이 비통해 하는 부분은 하나님 같지 않아 참 사람이라는 증거로 씁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걸었다든가, 죽은 자를 벌떡 일으켰다든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부활한 사건은 참 하나님의 증거로 삼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양면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도 나타났다가 저렇게도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인상 깊게 봤던 한 쪽은 여자고, 또 한쪽은 남자인 아수라 백작이 있었습니다. 정면을 보고 말하면 남녀 두 개의 목소리가 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두고서 그런 양면성을 가진 아수라 백작 내지 야누스로 만들어 버립니다. 놀랍게도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마치 그럴 듯 하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의 삶을 놓고서 이것은 인간적인 부분, 이것은 신적인 부분이라고 나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뱀이 동그랗게 꼬리를 틀기도 하고 팔자로 틀기도 합니다. 그럼 그 뱀은 0이기도 하고 8이기도 합니까? 그저 뱀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은 사람이고 어느 부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고의 함정입니다. 참 사람,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예수님의 삶 자체를 통으로 보고 하나님의 삶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람의 삶을 보는 편협한 시각을 버려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삶을 보는 편협한 시각을 버려야 합니다. 칼게돈에서 결정한 신인 양성교리가 잘못 쓰여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 내지는 이해하는 방식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책이 잘못 쓰여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성경책을 사용하는 방식,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기반 자체가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신적인 삶,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신적인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어떻게 예수님처럼 신적인 삶을 사는가 하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요즘 식으로 말하면 유전자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뿌리 혹은, 전통, 역사, 문화라고도 했습니다. 요즘엔 역시 기술과학교가 가장 우세한 종교이다 보니 그런 용어들은 다 사라지고 DNA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유전자를 DNA로 분석하면 사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게 되는 것을 성령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DNA를 가진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DNA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 기독교가 생각하는 유일한 신적인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남자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남자의 삶이 드러날 것이고 여자 유전



자를 갖고 있으면 여자의 삶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사랑하는 삶으로 혹은, 사랑하는 존재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완전한 참 사랑이요, 완전한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에 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고, 바울이 전하지 않은 유전형질을 개입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불사의 육체, 혹은 무협지에 나오는 허공을 밟고 걸어 다니는 능공담허를 떠올립니다. 예수님이 물위를 걸어 다니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편입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DNA 형질에 관해서는 여러분의 상상이 만들어낸 것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삶, 혹은 바울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고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좋아하지도 대단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여기에 나타난다고 가정하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존재를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나에게 주어졌고 나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DNA라는 사랑하는 존재 외에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력난신을 좋아합니다. 괴상망측한 힘을 가진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DNA는 괴력난신입니다. 세상의 최고권력자들이야말로 괴력난신의 핵심입니다. 왕이 일관적인 정책을 펴겠습니까? 아

니면 번덕스러운 정책을 펴겠습니까? 왕을 하는 맛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곳, 병자를 일으키는 곳, 귀신을 쫓아내는 곳, 어떠한 형태의 괴력난신이 활개치는 그 어느 곳에도 우리가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사신 그 하나님의 삶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선 괴력난신을 추구했던 자기의 영적 무지와 종교적 어리석음에 관한 폐기처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탄절만큼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괴력난신이나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소원성취했다는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한 순간도 진전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갖게 해 달라는 소원을 빌어 아기를 낳은 한나를 따라서 믿음을 가진 분들은 괴력난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따라가지도, 다윗을 따라가지도, 아브라함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동안 희로애락이 있고, 우리 뜻대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잠에서 깨서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인간은 기본적으로 뜻대로 된 것은 생각이 안 나고 뜻대로 안 되는 것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견갑골의 제일 아래부위가 어느 위치인지 생각이 나면, 여러분의 등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엄지 발가락이 늘 생각나면 엄지 발가락이 안 좋은 것입니다. 평소엔 여러분 몸의 부위들이 어디에 있는지 잊고 살지만 내 몸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된 것은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인간의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사랑하는 삶을 잘 산다면 여러분의 기억엔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한 기억은 많을지라도 사랑한 기억은 안 납니다. 새해에는 사랑하지 않은 기억은 정말 조금밖에 안 나는데 사랑한 기억은 너무 많이 나는 것을 뒤집어야 합니다.

여기 여자분 많이 계신데 화장실 갈 때 자기도 모르게 여자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내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나에게 주어졌고 나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DNA라는 사랑하는 존재 외에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간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 아들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매년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가는데, 열 두 살 되던 해에 예수님이 엄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있었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경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 동안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성경선생들이 보기에 기특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노는 것이 즐거워서 며칠 동안 있다가 오랜만에 만난 엄마에게 하는 말이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몰랐나?’입니다. 그것이 사춘기를 막 접어든 예수님의 첫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신분에 대한 자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지를 이제야 알았으니 여기서 살겠다고 떼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다음과 같은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았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와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돌 지났을 때 엄마가 성전에 박아 놓은 것입니다. 아이 못 낳던 한나가 아기를 낳게 되자 그 아이를 성전에 넣은 것입니다. 무슨 조공이나 시주 드리듯이 하나님한테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 두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믿음을 갖기 시작한 어떤 사람에게 사춘기가 어떻게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 줍니다.

내가 기도해서 사업이 잘 된 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올해 기

도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교통사고가 크게 난 것도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고, 내가 힘이 있을 때에는 도움을 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의 삶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고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괴력난신,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 버락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을 저주해서 불구덩이에 빠진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료하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서 예수님을 안 믿었구나’ 하고 반성하고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욕심사납게 세상소원은 소원대로 쥐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꼭 쥐고서 예수님이 이리로 가자고 하는데 따라가지도 못 하고 중간에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기도해서 내 삶이 나아졌다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비록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다가 흠으로 돌아갈 찢어빠질 육체를 가졌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유일한 과제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도 종교인인데 잘 되게 하는 기도를 하면 안 하는 것보다 잘 되겠지’ 이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명료한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고상한 길이 우리 눈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늘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사는 길이 여러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사는 여러분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삶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몸이 아파도, 가난해도, 혹은 돈이 많아도 인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주는 삶을 잊지 마십시오. 겨울 불 때 내가 보기에 못 나빠진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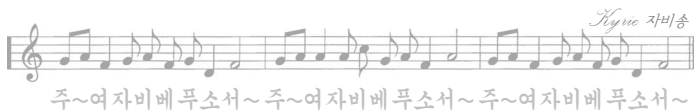
# 2015년 크리스마스 잔치

지난 12월 24일에 크리스마스 잔치를 했습니다. 교우들은 한 달이 넘게 공연을 연습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함께 즐겼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전주새누리교회와 교회 밖 사람들도 초청하여 더욱 풍성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2015년 크리스마스 잔치를 사진으로 돌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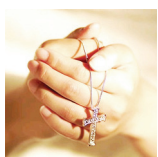




# 성탄절 둘째 주



주~여자비베무소서~ 주~여자비베무소서~ 주~여자비베무소서~



## 아침 기도

### 시편찬양

시편 147편 12-20절  
소리내어 천천히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네 문빔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네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네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같이  
우박을 쏘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 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 첫 기도

주님, 고난가운데 있는 세상에 구원의  
희망으로 오시는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고난 받으시고, 그  
고난으로 구원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의 길을 배우고 따  
르게 하소서. 세상의 희망이 되라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주님께서 가르  
치시고, 행하신 대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  
여, 주님과 하나가 되고, 고난 받는 세상에  
희망의 빛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 독서

마가복음 사도행전  
9-10 / 11-12 / 13-14  
15-16 / 1-2 / 3-4  
소리내어

##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 주기도

소리내어 천천히

## 하루의 계획 & 청원 기도

기도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일상계획과 말씀실천계획을 적  
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를 위한  
청원을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 중보기도

† 예가교회가 주중에는 사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에는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조  
차 잘못하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스  
스로 괴롭히는 과거의 속박을 끊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미래를 향하여, 사랑하는 존재로 살게 하  
소서.

† 예가교회가 돈과 하나님 중에 모든 것  
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서,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 온 세계와 한국의 교회들이, 화해와 일  
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  
울 수 있게 하소서.

† 한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배인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분단의  
고통을 평화적 통일로 치유할 수 있게 하  
소서.

† 예가교회의 교역자들이, 목숨을 다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  
랑의 능력을 주소서.

†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인도자들과  
재정과 수고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사  
랑의 기쁨을 주소서.

† 예가교회의 모든 활동이, 예수님의 새  
가족과 새 고향의 꿈을 만들어 가는 일이  
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필요들을 채워주소  
서.

† 예가교회의 가족모임이, 사랑을 행하  
며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소서.





† 예가교회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지켜주소서.

† 예가 식구들이, 교회의 비전으로 하나 되어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자비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 마침 기도

주님, 지난밤 주님 안에서 편히 잠들게 하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탈 때나,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되게 하소서. 아멘.



## 밤 기도

### 시편찬양

시편 147편 12-20절  
소리내어 천천히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네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네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네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 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 첫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줄 모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 고백과 감사의 기도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하루를 돌아보아, 잘못된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잘된 일에는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 주기도

천천히, 내용을 따라

## 마침 기도

생명의 주님,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낮 동안 활기 있게 하신 주님, 자는 동안에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비오니, 오늘 이 밤도 나를 찾아오시어, 주님 은총의 힘으로 새벽에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 데살로니가전서 자세히 읽기

제 75 회



##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37)

요한복음서의 독특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특정하는 개념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이들이 많다. 대체로 왕이 그러하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의 자녀 혹은 아들 중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에 의해서 구별되는 이들만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른다.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름에 의해서 구별되는 방식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서 사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사는 사람이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미리 선언한 바가 있지만, 그 선언이 성취되는 일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렇다는 것이다. 어째서 그렇다는 것일까?

로마의 황제는 ‘시저’라 불린다. 요한복음은 이 논리를 ‘예수’라는 이름에 적용하

여, ‘예수’라는 이름을 ‘시저’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대표명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수’라는 이름을 ‘시저’ 대신에 내세웠으니, ‘시저’는 부정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예수’라는 이름만을 인정하고, ‘시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확대해석하면, 신정론적인 문제와도 연결된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구현되는 통치이다. 이 점에서 ‘시저’에 의한 통치는 하나님에 의한 통치와 무관하다. 즉, 하나님은 시저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거나 구현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물론, 이와 같은 해석은 구약의 몇몇 예언자들의 해석과 충돌하는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는 매우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만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구현하신다. 따라서, 그 말씀을 자기의 몸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며 탄식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통치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만 나타나고,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한 가지를 더하고 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하는 삶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전의 ‘예수’라는 이름은 역사적으로 존재한 한 사람의 이름으로서 고 유명사였던 것이, 그의 ‘죽음과 부활’을 거치면서, 보통명사화 된 것이다.

이는 로마제국의 첫 황제가 된 ‘시저’라는 인물의 이름이 그가 살아있을 때에는 고 유명사였던 이름인데, 그의 죽음 이후 그가 ‘신격’(Divus)으로 승격되면서, 그의 이름은 모든 로마황제의 대표명이 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즉,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한 유대인 청년의 삶은 그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따라 살며, 바울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은, 그와 같은 이름 즉, ‘예수’라는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어떤 이들은 ‘큰 예수’, ‘작은 예수’ 하면서 ‘역사적 예수’와 이후에 예수님의 삶을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구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예수’라는 이름은 더 이상 역사적으로 실존한 예수님의 사유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르며,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은 누구나 ‘예수’로 불리어질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보통명사로 발전했는지를 요한복음서 전체의 스토리를 통해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를 연결시켜 주고 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에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해 둘 만한 점은, 요한복음은 중세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신학이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유일성(uniquness)를 강조한 것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요한복음은 ‘예수’라는 이름의 역사성이나 유일성에 주목하지 않는다. 요한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예수가 되어라!’로 전하고 있다. 예수가 되어야만, 예수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존재로 살 때에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 어울리지 않고, 나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 혹은 아들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보다도 더욱 래디컬(radical)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나 성령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혹은 아들이라면, 그는 예수의 삶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과 부활에도 연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에 올인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믿음에 관한 한 사도바울 못

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욱 철저한 입장에서 있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 살 것이면, 대충 흐리멍텅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이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 살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까지는 가야 할 것이고, 그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까지는 가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시대는 교회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전해진 사랑하는 삶이 이교의 철학과 종교와 뒤섞이면서, 점점 추상화되고, 현실적인 삶의 자리를 잃어가는 위기에 직면했던 것이다. 사실, 사도바울과 요한복음의 가장 큰 차이는, 사도바울은 ‘예수’라는 이름을 강조하지 않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 이름에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집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도바울의 시대는 ‘예수’라는 이름보다도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 더욱 좋은 시대였을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사람들을 형제와 가족관계로 묶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시대의 교회들은 그리스도라는 지위를 공유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들의 공동체의 말형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추상화되고, 변질되어 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바울 시대에 교회의 정체성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에 의해서 드러났던 반면에, 요한복음의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정체성을 담기에는 이교적인 요소들과 너무나도 많이 뒤섞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용어들이 세속적인 개념들 내지는 이교적인 개념들과 뒤섞여서 그 언어의 본래적인 의미가 도태된 지경에 이른 것처럼,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가지고는 교회의 정체성을 담보하기에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보통명사화 하여 확실한 구분을 만들어내려 한 것은 아닐까? ‘예수’라는 이름은 역사적으로 실존한 육체를 가진 사람 예수의 삶을 포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 이름으로 구별할 수 있고 묶어낼 수 있다. 또한, 당대에 황제로 통했던 ‘시저’라는 개념과도 맞설 수 있는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표현하기에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2세기 초에 이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정도가 된 것을 보면, 요한복음의 시도는 그리 성공적이진 않았던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시도이고, 꼭 필요한 시도였다고 본다. 만일, 그리스도라는 지위가 교회의 정체성을 담보하기엔 충분하지 못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었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익명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허접한 개념은 나오지도 않았을지 모른다.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니 더더욱 그들을 두고 예수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을 테니 말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없을 테니, 그들을 두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도 쓸 수 없었을 것이고, 그들의 철학이 곧바로 기독교 신학으로 적극 수용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이후에만 보통명사가 되어,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이름이다. 반



면에, ‘그리스도’는 예수님 이전에 이미 있었던 신분에 관한 표현이므로, 예수님 이전에도 충분히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의 지위를 얻는 일이 가능하다. 물론, 요한복음은 로고스 선재설 같은 발언을 한 적도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내에서 침례자 요한도 자기보다 어린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소개한 적도 있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자신이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다고 발언한 적도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관문이 하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선재를 했건 어쨌건은 요한복음의 큰 관심이 아니다. 요한복음이 관심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비로소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비로소 ‘예수’라는 이름이 보통명사화 되어서 그의 삶을 따르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소원하며 연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부여된 것이고, 이 ‘예수’라는 이름만이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아들’을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혹은 아들들을 묶어낼 수 있는 유일한 표현형으로 선언된 것이다. 적어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공동체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살았을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최선의 방식이었을 것이다. 애석하게도, 지난 2천여 년 간 복음서들 중에서, 그리고 신약성경을 통틀어서 요한복음만큼 이교의 철학이나 종교적 가르침들이 뒤섞여서 오염된 책도 없다. 어떤 신약성경보다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정체성에 충실하려고 몸부림쳤던 책인데, 그래서일까? 이교의 철학과 종교에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가장 많이 짓밟힌 책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오늘날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주적 신앙, 모든 종교를 아우

르는 보편적 신앙을 논한다. 타종교의 지도자나 비그리스도인들도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라고 한다. 수운 최제우도 요한복음의 쪽단편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 ‘인내천 사상’을 펼치며 동학운동을 이끌었다는 전설도 있지 않던가? 그만큼 요한복음은 이교적인 방식으로 철학화 되어서 읽혀지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육체의 세계가 가진 제약을 벗어나 광활한 정신 혹은 영혼의 세계를 드러내는 책인 것처럼 읽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자리에 ‘예수’라는 이름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는 없다. 물론, 요한복음을 독해하면서 그 이름에 주목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이다.

교회사와 교리사는 ‘예수’라는 이름을 유일회적인 이름, 즉 고유명사로 되돌려 놓았다. 예수는 유대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보통 사람들과는 존재 방식 자체가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이며, 그 이름은 오직 그 이외에는 아무도 공유할 수 없는 지위를 갖게 된다. 이는 실상 ‘예수’라는 이름이 교회에서 왕따 당하고 쫓겨난 사건이다. ‘예수’라는 이름을 개방하여, 그의 삶을 따르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수여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런 시도들은 이단으로 간주되어 교회에서 축출되었고, 교회가 그것들을 일일이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도 그런 경우는 꾸준히 있었을 것이다. 요한복음의 믿음을 따라,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살 고자 했던 교회는 언제나 마이너리티, 즉 소수였을 것이고,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내 안에서 탄생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전한 것은 훌륭한 일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

게나 수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열어 놓은 일이니 말이다. 물론, 그는 당대에는 이단으로 몰렸다가 후대에 복권되기는 했지만, 그의 시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에게나 수여될 수 있는 지위로 되돌려 놓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중세의 시작 이후 천년에 가까운 교회의 흐름을 뒤흔들어 놓는 일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시도는 다분히 바울적인 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울 시대에 교회를 세우는데 유효했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가르침이 에크하르트 시대에 다시 선포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생명력을 잃어가던 교회를 흔들어 깨울 수도 있는 큰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역시 요한복음만큼, 즉 ‘예수’라는 이름까지는 가지 않았다. 아마도,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에크하르트의 시도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에크하르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누구에게나 수여되는 지위라고 선언한다면, 이단이니 신성모독이니 하며 발끈할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니 말이다. ‘예수’라는 이름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은 바울적인 선언만으로도 충분히 논쟁적인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대인 것이다.

예수님의 독특함은 한 가지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살고, 죽고, 부활한 이로서 첫 번째 사례이고, 그 점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요한복음도 인정하고, 바울서신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서신은 ‘그리스도’를 일반화시켰고, 요한복음은 ‘예수’라는 고유명사를 보통명사화해서 일반화시켰다. 바울과 요한복음의 시도는 교회의 삶의 자리를 놓



고 볼 때, 충분히 시의적절한 시도였을 것이다. 다만, 지난 2천 년 간 바울의 가르침이나 요한복음의 가르침 중 어느 것도,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제대로 전해지고, 관철된 적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도 비통할 뿐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나누어 주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은 주술적 주문으로 바꾸어 먹은 교회는 도대체 지난 1600여 년 간 무엇을 했던 것인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믿지 않고, 요한복음처럼 ‘예수’도 믿지 않는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믿었던 것일까? 어떻게 해서 이런 참담한 변질이 일어난 것일까? 중세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난 1600여 년 간의 교회가 보여준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모습이였다.

요한1서가 경고한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삶으로 빠져 들어간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도, 하나님의 권위를 악용하여 권력의 향응에 취해서 살았던 것이다. 개신교의 종교개혁 역시 권력질서의 재편이 목적이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나누어 주려고 한 개혁은 아니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요한복음처럼 ‘예수’도 아닌, ‘사제론’을 가지고 싸웠던 것이다. 사제들에 의해서 독점되었던 권력을 모두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나, 사제를 모두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도 권력의 분배 문제가 아니던가? 바울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존재를 나누어 주려고 한 것인데, 종교개혁자들은 ‘사제’라는 권력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나 ‘예수’는 무슨 특권이나 계급적 지위가 아니다. 이는 하나

님의 아들이나 예수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존재이며, 그 삶을 살지 않을 때에는 자동으로 당장 무효가 되는 것이다. 지위나 계급처럼, 존재가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나 예수의 이름에 걸맞게 살지 않아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만인사제설은 사제의 권력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줌으로써, 기존의 사제권력을 통하지 않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하여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일대일로도 사귀게 갖게 한다는 기획인데,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바울이나 요한복음의 가르침과는 지향점이 다른 주장이다. 애초에 사제권에 주목하여 싸운 것 자체가 권력적인 지향이나 관심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권력이 공평하게 나누어질 리가 없지 않은가? 권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나누어진 인간의 역사가 있었던 적지 않은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권력이 해체되어 사라지는 날이 아니겠는가? ‘만인사제’가 실현되는 날은 곧 모든 사제직이 없어지는 날이고, 사제의 모든 특수한 권력이 소멸되는 날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만인사제설’을 이야기했다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그들은 그것이 구교와 신교로 갈라진 세력들 사이의 권력다툼의 양상이 더 주요했던 것이다. 이 싸움으로 유럽 인구의 1/3이 목숨을 잃었고, 오늘날에도 구교와 신교간의 갈등으로 인한 피비린내 나는 희생들이 있는 지역들도 남아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수행한 개신교는 내부의 분열도 계속되어, 지금까지도 개신교들끼리 서로 다투며 수백 개의 교파로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만인사제설을 주장하며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도 만인사제를 믿지도 않거나와 실천하지도 않는다. 아마도,

만인사제설을 실현하려면, 현재의 목사나 교회의 법, 각종 직제와 제도들을 모두 갈아엎어야 할 것이다. 그 정도로, 개신교 역시 가톨릭과는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나름대로 권력의 질서를 만들어 놓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경을 라틴어에서 모국어로 번역한 일은 개신교가 잘한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잘 읽게 되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 언어가 어떤 믿음과 삶의 자리에서 태어났는가를 모르면 독해되지 않는 책이다. 적어도, 그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으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실천하여 깨닫는 것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 자기의 몸으로 살아냄으로써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고 배우며 앞서간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의 줄이 이어져야 성경이 읽혀질 수 있고, 전해질 수 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기존 교회의 권력과 다투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허비했고, 정작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구해내는 데는 소홀하였다. 그 결과, 개신교의 자체반성은 개신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수준이 하향평준화 되고 말았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시간에 계속...)





#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족의 1분 스피치 & 사랑 이야기

## 성실가족

광야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짜과 선물을 나누고, 감사 글을 읽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실가족으로 1년간 살면서 좋았던 점을 나누는 시간에는 “성실가족 가족 자체가 좋다, 성실가족으로 살면서 더 알아갈 수 있어 좋고, 더 좋아하며 살고 싶다, 성실가족 1년차에는 여름님이 함께 하여 좋았고, 2년차 후반기에 광야님이 참여하여 가족모임이 짝 차서 완성된 느낌이 든다, 서로를 알아갈수록 세상과 달리 더 좋아해서 좋다, 형님, 누나들과 편하게 있는 것이 좋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데 힘을 얻어 사는 것이 좋다, 내년에는 더 사랑하며 살겠다, 작년에는 인도자로서 열정으로 욕심을 부려, 덤비는 마음이었으나 지금은 안정되게 성실가족모임을 하게 되어 좋다, 가족모임 횟수가 많아질수록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가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좋은 점을 보는 눈이 더 밝아진 것을 느낀 한 해였다, 수련회가 좋은님의 삼계탕 대접으로 3박5일처럼 되어서 더 좋았다, 광야님 덕택에 수요일마다 매번 새로운 메뉴로 푸짐하게 잘 먹어서 좋았다, 수

련회 때는 자동차가 고장이 났지만 부정적인 영향은 하나도 없었고, 서로가 더욱 하나되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 사귄과 여가로 찜질방에 함께 가서 즐기고, 백사실 계곡에서 좋은 풍광을 즐기며 여유로운 산책을 한 후, 서촌 마을에서 저녁을 함께 한 것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고 싶은 것들을 나누고 10대 뉴스를 함께 만

## 포도가족

커피숍에서 7명이 만나서 송년모임을 하고 ‘블루문’이라는 곳에서 찜즈공연을 보며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산 것에 대한 감사와 캐릭터로 살아서 좋았던 점, 올해 살았던 캐릭터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 나누고 포도가족 3대 뉴스를 이야기하며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캐릭터로 산 한 해의 감사를 나누는 시간에는 “캐릭터로 계획을 세워서 살 수 있어서 좋았다, 가족모임에 참여하도록 노력했다, 흥반장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가족들이 맡은 것들을 잘 해주고 가족들을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가족들에게 고맙다, 캐릭터를 내 삶에 녹아 들도록 노력했다, 내년에 캐릭터로 더

잘 살고 싶다, 포도가족들과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더 좋아하게 되었다, 포그니 스머프로 가족들을 포근하게 품으며 사는 것이 좋았다, 내년에는 새로운 캐릭터로 살고 싶다, 기쁨이 스머프로 살며 기쁨을 전하려고 노력했다, 캐릭터가 약한 느낌이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캐릭터로 살고 싶다,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포도가족의 3대 뉴스는 1) 수련회, 2) 새롭의 귀환, 3) 크리스마스노래연습이었습니다.

## 소식가족

혜화동에 있는 식당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가족모임의 10대 뉴스를 나누었고, 한 해를 지내온 것에 대한 느낌을 나누는 시간에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 가족들이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가족 모임을 우선 순위로 두고 잘 모였다, 뒤로 갈수록 더 잘 되고 있음에 감사하다, 참 재미있게 지낸 한 해였다, 공연 때문에 몇 주 빠지다가 다시 참석하면서 가족모임이 내 생활의 중심이란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몸이 많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계획을 세우고 함께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알았다, 주기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게 되고, 사진으로 기록하며 1

년을 잘 돌아볼 수 있었다, 멤버십이 강화된 것을 느낀 한 해였다, 가족모임에서 재미를 찾고 힘을 얻었다, 가족모임이 삶의 중심이 되어 편하게, 재미있게, 많이 웃고 지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새해를 맞는 계획으로는 “기도를 안정적으로 하겠다, 즐겁게 살겠다, 새 집에서 가족모임을 하게 됐으니 가족들을 잘 먹이도록 하겠다, 많이 웃고, 재미있게, 젊게 살겠다, 같이 일하고, 정을 쌓아 가는데 균형을 맞춰서 움직이겠다, 가족모임에서 공동의 과제를 정해 집중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안 해 왔던 일을 해보고 싶다, 사순절 금식을 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 드림가족

소망님 집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음식을 준비해서 포트락 형식의 송별 모임을 하였습니다. 월남쌈, 생선전, 연어샐러드, 보쌈, 과메기, 김치찌개, 과일과 음료 등 풍성하게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 후에는 가족 모두가 감사카드를 읽고 감사선물을 나누었습니다. 게임시간에는 드림가족 7대 뉴스와 한 해 동안 가족모임에서

있었던 일들을 객관식문제로 내서 맞추는 게임과 초성게임, 빙고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감사를 나누는 시간에는 “기도를 통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겠다, 가족들과 더 많이 사귀는 다양한 사귀를 가지겠다, 외부인 초청 테라스파티를 하고 싶다, 바자회를 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며 감동적으로 모임을 마쳤습니다.

## 화음가족

불꽃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유산술과 라조기를 메인 요리로 하고, 불꽃님의 미역국과 푸른님의 단호박 수프와 와인으로 화려한 송년회 상차림을 준비하였습니다. 시원님이 한 해 동안의 가족 사진들을 동영상앨범으로 만들어 올리고 개인별로 맞춤 앨범을 제작하여 선물하고 가족들은 감탄과 환호성 속에서 앨범을 돌려 보며 한 해 동안의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감사편지와 선물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꼽은 2015년 좋았던 점은 모두가 함께 한 여름수련회와 크리스마스잔치 뒷정리가 차지하였습니다. 휴가를 내고 오전부터 잔치준비를 함께 한 불꽃님은 수고의 기쁨을 만끽했다고 고백하였고, 사귀와 여가 행사로 찾았던 수녀원 찻집에서의 오후, 주일 예배 직후 웅기종기 모여서

소식지 발송 준비를 하며 가졌던 짧은 수다 타임, 주일 오후에 믿음의 대화로 꽃피웠던 이난희님과 사귀, 매주 일대일 만남 짝에게 집중하였던 사랑의 실천, 가족들이 아무리 바빠도 가족모임을 우선순위로 하는 마음가짐을 지킨 것 등을 꼽았습니다. 개인별로 좋았던 일로 푸른님의 성서일과 한 마디와 섬김 주간 집초대, 화음님이 바쁜 일정과 인도자 역할을 소화해낸 것, 불꽃님이 자주 장소 준비를 하면서도 항상 기쁨으로 가족들을 맞이한 것, 한가온님이 복직 후에 힘들었을 때 가족들이 함께 돕고 격려하여 좋아진 것, 신나님이 연말 밤샘 과로에도 불구하고 호흡기도의 모범을 보인 것, 시원님이 많은 역할들을 시원시원하게 해내고 앨범으로 멋진 마무리를 한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무엇이든 함께 하면 재미있는 경험을 더욱 자주하고, 이전에는 안 해 보았던 일을 기꺼이 나서서 즐겁게 하게 되는 사건이 더욱 자주 일어나고, 사귀와 여가 행사에서 각자 한 가지씩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새식구를 맞이할 수 있게 되리라는 기대감을 나누었습니다.

## 맑은가족

한정식 집에서 7명이 모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만찬에 대한 후기를 나누고, 1년 동안 서로에게 감사한 글과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나무님이 맑은가족 9대 뉴스로 빙고게임을 진행하여, 샤론님과 늘빛님이 3줄 빙고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의 맑은가족 뉴스는 무의도 여름수련회, 운유님의 가족모임 참여, 성탄절 파티 준비, 가평 데크 칠, 발 맛사지, 뮤지컬 관람과 신당동 떡볶이 먹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회 먹기, 나무님 노동부장관상 수상, 샤론님 동대문 도매시장 개업입니다.

한 해 동안 사랑한 기쁨과 감사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져서 악수와 포옹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며 헤어지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2016년 사랑하는 삶을 향해 멋진 팀워크를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사랑가족

초록님 집에서 7명이 모였습니다.

송년모임을 위해서 가족들이 각자 음식을 하나씩 준비해와서 파티를 하였습니다. 가족들의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롤링페이퍼를 적는 시간을 가지고 각자 하나씩 준비해온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사랑가족의 10대 뉴스를 맞추면서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사랑가족 10대 뉴스의 1위는 사랑가족에 고래와 모란이라는 새 식구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가족의 한 해를 돌아보고 가족들 각자가 2015년을 사랑가족으로 살면서 감

사한 것들을 나누고 2016년의 기대를 나누었습니다.

2015년 사랑가족으로 살면서 감사를 나누는 시간에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으며 가족모임에 오는 발걸음이 항상 설레었다, 1년을 되돌아보니 인도자의 열정으로 뭉쳐져서 1년을 보낸 것 같고 희망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활력이 있던 한 해였다, 사랑가족으로 2년째 살면서 캐릭터 활동을 올해는 더 잘 할 수 있었다, 다른 가족이 캐릭터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배울 수 있었던 점도 있었다, 가족모임은 세상에 휩쓸려가기 좋은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었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2016년 사랑가족으로 살면서 기대하는 바는 “올해 가족들이랑 잘 살았던 것처럼 내년에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즐겁게 사는 캐릭터를 선택하고 잘 세워서 가족모임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 어제보다 오늘 더

화음가족 시원 박주현



얼마 전 서랍 정리를 하다가 다이어리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수첩을 발견했다. 2013년도 수첩이었는데 초반에는 약간의 투병일기 형식의 간단한 메모가 적혀있었다. 정리하다 말고 수첩을 뒤적이며 추억을 곱씹고 있다가 4월인가에 생뚱맞게 ‘주는 언니 방문’이란 내용을 보게 되었다. ‘뭐지?’ 하며 한참을 생각해보니 평촌 롯데백화점에서 근무할 때 아모님이 안양으로 오셔서 같이 점심 식사를 했던 날이 떠올랐다.

잘 지내고 있는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 문제도 이야기하다가 샘물님께 듣기로는 내가 꼭 교회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고 했다는데 자기가 직접 듣지도 못해서 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왔다고 하였다.

그 당시를 회상해보면 아이들을 교회에서 키우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지만 확고한 의지 뭐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다. 언니는 나의 다짐을 듣고자 왔는데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어울리지 않았고 교회에서 키우고 싶다고 말씀 드렸다.

생각이 그렇다면 당장은 어렵겠지만 주일예배와 자녀 양육 모임도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아모님이 말한 것 같다. 그런데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주말에 쉬는 건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는데, 일이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냐며 한 9월쯤이

면 정리하고 나오면 되겠다고 말했고 나는 점심시간이 끝나서 백화점으로 들어갔다. 한 두 번이면 모를까, 매주 주말을 쉬는 일은 유통업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 당시 내 생각은 그냥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웃음으로 내 대답을 대신한 것 같다. 그렇다고 직업을 바꾸는 것 또한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다시 취업을 하는 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우연한 기회로 지금의 회사 공고 모집을 알게 되었고, 크게 기대하지 않고 지원을 하고 채용전형을 거치고 입사를 하게 되었다. 8월 말에 입사를 했으니, 9월부터 예배도 참석했고 아웃도어도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그 해에는 예배만 겨우 참석하고, 자녀양육 아웃도어도 거의 참석은 하지 못하였지만 말이다. 내가 회사를 다닌다는 것은 더군다나 큰 회사에 다닌다는 것은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이었다.

가족모임, 양육모임에 속하고 2년을 보내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의무적으로 참여를 했던 가족모임 시간이 기다려지는 날이 많아졌다. 1을 행하여도 10으로 반응해주는 우리 화음가족 구성원들 덕분에 작년보다 가족모임이 더 즐거워졌다. 가족모임을 통해서 사랑 받아서 행복하다는 생각보다 사랑함으로 설레고 행복한 기쁨을 알게 되었다. 또, 교회에서 배운 대로 친

구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연말에 감사함을 조그만 선물과 함께 전하는 것을 실천하니 다들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양육모임 아웃도어를 나가면 내 조 아이들 보다 민혁, 민건이가 눈에 먼저 들어오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정말 없다. 정말 신기한 일이다.

요즘 하루하루가 재미있고 행복하다. 힘든 일이 생기면 정말 내 일처럼 걱정하고 격려해주고, 기쁜 일이 생기면 정말 나보다 더 기뻐해주는 그런 가족들이 생겼다. 어느 대중가요의 노래가사처럼 ‘어제보다 오늘 더 그댈 사랑합니다’ 딱 내 삶이 그러하다. 가족모임, 양육모임에 속하지 않고 그냥 예배 참석만 하고 다녔다면 이런 기쁨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연말이라 각종 모임들이 많다.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어려 보인다, 예뻐졌다, 좋아 보인다’이다. 물론 얼마 전부터 시작한 다이어트 영향이 가장 크긴 하겠지만 항상 웃고 사랑하는 삶이 얼굴도 좋아 보이게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 같다.

단언컨대, 예가 교인으로, 시원으로 사는 삶을 통해 앞으로도 이런 놀라운 일은 꼭 계속될 것이다.





# 인물열전

하마 양동엽

2016년 첫 달의 주인공은 학생부를 졸업한 하마 양동엽님입니다. 의젓하게 성장한 하마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기분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 1. '하마'라는 새 이름은 누가 지었고, 어떤 의미가 있나요?

순수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에 '하얀 마음'을 줄여서 나름 재미있게 지었는데, 최근까지도 동물인 하마로 알고 계신 교우들이 많아 잘못 지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 2. 학생부에서 가장 큰 형님으로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어떤가요?

중2때 들어와 5년이 되었고, 성찬대접 진행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모님이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레시피의 제육볶음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팔빙수 진행 총괄을 맡아 리더쉽이 생겼고, 동생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독려하며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책임감이 커지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 3. 집에서도 큰 형님인데 어릴 때는 어떤 아이였나요?

저는 동생들과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데 교회에 동생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6학년 쯤 사춘기로 엄마에게 짜증을 많이 냈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큰 형이라 바로 윗 선배와 어색해서 아쉬웠는데 작년에 초등부 선생님을 하며 청년부 누나들과 교류를 해서 좋았습니다.

## 4. 대기명당으로 살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제가 활동적이라 놀거리가 많고 순

박한 시골분위기의 라오스여행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1주일의 스케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제 삶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지난 12월에 혼자 처음으로 3박 4일 일정을 짜서 오사카와 교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오사카공항에 도착했을 때 바로 유심카드가 안 되어 핸드폰을 쓸 수가 없어 당황했었는데, 겨우 숙소에 도착해 일본인 주인과 영어로 대화하며 결국 성공해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또한 공기의 상쾌함이 다르고, 천수사와 늘어서 있는 상가 등이 인상적이었던 교토는 다시 가 보고 싶습니다.

## 5. 함께 먹고 자고 놀고 공부하면서 가장 친해진 선배나 후배는 누구인가요?

두루두루 모두와 친해졌는데, 그 중에서도 산책을 좋아하는 저와 아람(류재현)이 남산산책을 자주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 6. 여가시간엔 무엇을 하며 지내나요?

전시회 관람을 좋아해서 친구들과 소파 등 가구 설치미술전인 맨디니전과 패션 디자이너가 패션쇼와 무대전체를 확장시켜 전시한 헨릭 뫼스코브전을 다녀왔는데 좋았습니다.

## 7. 교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무엇인가요?

고3이라 대기명당에서 책임기가 빠져 한참 안 읽었는데, 그 중에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과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

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 8. 앞으로의 진로는 정해졌나요?

재수를 결정해서 스마트폰을 2G폰으로 교체하는 등 공부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없애고 최선을 다해 공부할 계획이고, 디자인과 영화에 관심이 많아 진로도 그 방향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 9. 마지막으로 이 소식지를 읽는 교우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고 도와 주시는 어른들께 감사 드립니다.

재작년 크리스마스 선물행사에는 불어로 '오 상제리제'를, 작년엔 독어로 '이히 리메디히'로 달콤함을 선물한 하마님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부를 다시 시작한 하마님에게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예가 소식 & 공지

1. 지금은 성탄절기이며, 오늘은 신년 첫 주일이자, 반가운 주일입니다. 성탄절기 동안, '서로 사랑하라'하신 예수님의 계명 안에서, 형제를 좋아하고, 잘하는 삶으로, 우리 가운데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누리는 절기로 지냅시다. 다음 주일부터는 주현절기가 시작됩니다.

2. 2016년 신년스케줄 집회 안내입니다. 스케줄 집회는 오늘 사랑의 식탁 후에 첫 모임을 갖습니다. 스케줄 집회는 주일에는 사랑의 식탁 후에, 수요일에는 저녁 8시에 모입니다. 스케줄 집회는 스케줄이 완성될 때까지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이번 주 목요기도회는 신년 첫 기도회로 갖습니다. 시간은 밤 9시 30분이며, 장소는 친교실입니다.

4. 신년집회 강의는 자료실에 모두 업로드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5. 다음 주 예배위원은 맑은, 독립군님입니다. 예배위원은 공지가 나가면, 예배의 뜻을 새기며 기도와 형제를 좋아하는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식탁은 맑은가족이 대접합니다. 1월 봉헌위원은 샤론님입니다.

### 날짜 성경읽기

월	창세기 1장 ~ 창세기 10장
화	창세기 11장 ~ 창세기 18장
수	창세기 19장 ~ 창세기 24장
목	창세기 25장 ~ 창세기 30장
금	창세기 31장 ~ 창세기 36장
토	창세기 37장 ~ 창세기 42장

\* 소식지의 통독표를 따라 읽으면 한 해에 1독 이상을 하게 됩니다.

\* 읽고 난 후 교훈을 1개 적고, 교훈에 따라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1개 적은 후, 그날에 실천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바로 순종이며,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같아서 비록 작지만 우리의 삶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 예배를 준비하여 드립니다. 예배준비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가 교우들을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YEGA community church**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일반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67

건축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71